**1장. 철학을 다시 묻다.**

**�� 철학이 뭔데? 도대체!!**

콘텐츠학을 대표로 하는 실용계 기반 신(新)학문, 환경철학을 필두로 하는 확장형 학문, 알고리즘학처럼 AI 시대에 특화된 첨단 학문, 그리고 "쪼개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외치며 이제야 '다시 합쳐 보자'는 통합학까지 오늘날의 학문들은 정말 다양하다.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단지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서? 밥벌이용 블루오션을 찾아 헤매다가? ‘이것저것 섞어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하는 절규 섞인 실험 정신?

…모두 맞고, 또 모두 틀렸다.

철학의 출발은 이보다 단순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진 문구였다. 그는 단지 그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되묻고, 감응했던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주역》이 단순한 점성술 책이 아니라 “음양과 오행”을 통해 세상을 읽으려는 동양 철학의 응답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다.

소크라테스가 “알라”고 했던 그 외침이나 주역의 음양오행이 지닌 상징 체계나 모두 결국은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응답이었다.

인문학이 사라졌다고 말들 한다. 인문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나의 출발과 끝, 그리고 그 과정을 살피는 일.

그것이 곧 인문학이고, 철학이며,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리퀴드 모듈, 감응 철학의 출발이자 종착역이다.